

설교학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의 신학적 배경\*

Theological background of Martin  
Lloyd Jones' sermon

필립 입슨 · 번역: 최윤갑

Principal of London Theological Seminary · 고신대 (신학과 교수)

목차

1. 칼빈주의 (감리교파) 교리 | 298
2. 성경 | 300
3. 그의 영적인 각성 | 302
4. 그의 독서 | 306
5. 결론 | 308

\* 본고는 2019년 11월 고신대학교에서 한 강의 원고를 번역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그 이면의 원칙들, 그리고 그 방법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강연, 책, 학술 논문, 심지어 박사 논문까지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26세에 이미 의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었고, 국왕 주치의의 조수였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와 목양 부문에서 의학적인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평가를 확인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로이드 존스가 수행한 설교의 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상 깊이 있는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흥미롭고 매우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도록 임무를 주신 신 독일 교수님(고신대 구약학)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제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생애의 여러 시기에 초점을 두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인 그로이드 존스의 생애와 사역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설교에 대해 말하자면, 로이드 존스는 설교가 교회와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는 모든 사역자에게 가장 높고 위대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독교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이 참된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sup>1)</sup> 그는 설교를 좋아했지만, 그 자신은 설교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을 덧붙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의 설교는 설명적이고 신학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설교를 ‘불의 신학(theology on fire)’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교는 불붙은 것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신학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sup>2)</sup> 그는 사람들을 위해 본문에서 메시지를 꺼내

1) D. Martyn Lloyd-Jones, *Preaching & Preachers* (London: Hodder & Stoughton, 1971), ch.1.

고, 성경 본문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의 설교는 설명적입니다. 이것은 본문이 전달하는 교리를 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설교는 신학적인 사고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설교는 특성상 신학적이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로이드 존스가 네 가지 종류의 설교에 열중했다는 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 중 특히 세 가지는 설교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첫째, 설교의 본질은 ‘복음주의적인(evangelical)’ 것입니다. 이것은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의 사역 초기에 로이드 존스는 자신을 먼저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했고 사람들 또한 그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런던 중심부에 있던 웨스트민스터 교회(Westminster Chapel)의 목사로 있던 30년동안, 그의 주일 저녁 설교는 특성상 모두 복음주의적이었습니다. 영국 각처에서 주중의 모임을 할 때 그의 설교는 항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부르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가끔 북웨일즈의 내가 살고 있던 도시에서 설교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의 설교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둘째, 설교는 본질상 실험적인(experimental)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그의 주일 아침 설교는 이런 종류였습니다. 셋째, 설교는 교훈적인(instructional) 것이고, 이 설교는 믿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장려하는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합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이런 설교는 금요일 저녁에 선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모임이나 경우에 하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너무 심하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지만, 주의 깊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인 로이드 존스 설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모든 설교는 특성상 신학적이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그는 복음주의적인 설교가 특히 신학적이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학은 분란을 일으키고, 복음주의적으로 설교할 때는 단순한 복음의 설명이 비개종자들에게 다가가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을 때, 그는 설교가 신학적이어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로이드 존스는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에 반대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대신, 죄인의 구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함, 그리고 영광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는 성경적이고 조직적인 신학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성경의 특정 구절이나 절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신학적인 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주 한 본문에서 다른 본문으로 넘어갈 때 스스로 모순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그의 모든 설교는 교리적이고, 그의 교리와 신학적인 위치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뚜렷하게 칼빈주의 개혁신학(Calvinistic Reformed)입니다. 그러나 건조하고 지적인 칼빈주의가 아니라, 온화하고 복음적이며 경험적인 칼빈주의입니다. 설교할 때 로이드 존스는 성경의 본문에서 신학적인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강단에서 표제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리를 언급할 때 그는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같은 용어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표제어에 반감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깊이 연구하고 설명할 때, 설교할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칼빈과 같은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권위보다, 성경 본문이 그들의 생각을 형성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칼빈이 믿었던 사도 바울의 교리를 설교했고,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소리치게 하였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 .

.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로마서 11장 33-36절). 그는 흔히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고 부르는 은혜의 교리를 믿었고, 그의 복음주의적인 설교는 특히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 죄로 인한 상실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법을 주된 내용으로 다룹니다. 그는 인간의 완전한 악,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과 부패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개혁신학의 다른 면은 복음주의 설교에 자주 언급되지 않았지만, 주일 아침 예배시간이나 금요일 저녁 모임에서 신자들에게 설교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설교는 명백하게 교리적이고 신학적이며, 더 특별하게는 성경 신학적인 설교입니다. 우리는 그의 설교의 신학적인 배경을 넘어가기 전에, 그의 설교가 상당히 독특하다는 점을 강조 해야겠습니다. 그의 설교는 당시 웨일즈나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와 예배당에서 듣는 설교와 달랐습니다. 그는 스완씨(Swansea) 근처의 남부 웨일즈 해안가의 작은 산업도시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목사로서 첫 주일은 1927년 2월 6일이었고, 설교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서론에서 그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인간의 지식이나 문화가 아닌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합리적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의 놀랄만한 사실을 대면할 때, 그 외-십자가-의 어떤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회중들에게 서로 '정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믿는 것에 대해 단순히 입으로만 화답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삶 속에서 진정으로 믿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회중들에게 기독교의 전문성(Christian Profession)을 고려하도록 일깨

웠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가? 단순히 감정주의, 전통에 대한 애착, 존중, 습관의 힘인가? 더 세련된 관찰자들 뿐 아니라 평범한 지역 신문기자들도 로이드 존스의 설교가 동시대의 형태들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가르침은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 당시의 웨일즈의 설교는 매우 감정적이거나 매우 지적인 설교였습니다. 반면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 설교자가 지금 여기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번은 그는 이렇게 관찰한 점을 말했습니다. '나는 전형적인 웨일즈의 설교자가 아니고 전에도 그렇지 않았다. 설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말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고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웨일즈 식의 설교는 한 성경 구절로 시작하고, 설교자는 단어를 연결하거나 분석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흥미를 잃게 된다.' 성경 본문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약간의 적용을 덧붙이는 것이 당시의 관습적인 설교였습니다. 그 대신 로이드 존스는 앞으로 상세히 설명할 본문이 청중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설교의 도입 부분에 상당히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초기에 설교자로서 그는 원고를 완전히 적어서 준비했습니다.

2. 동시대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와 그의 설교가 가장 큰 다른 점은, 이안 머레이(Iain Murray)가 잘 지적했듯이, 설교의 구조보다도, 설교 메시지의 내용에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받은 말씀이라는 본질과 권위를 훼손시키는 자유주의 신학대학의 근대 비평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설교자

들이 성경과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가 애버리스트위드(Aberystwyth)나 발라(Bala)에 있는 자신의 교단 신학 대학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던 근본 이유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부르심과 함께, 그는 자격이 충분하고 지적이고 의학자로서 성경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위에 단단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틀리지 않는 유일한 진리의 근원이며, 동시에 모든 종교적인 경험의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입니다.<sup>3)</sup> 그러므로 설교를 선포함에 있어서 그는 성경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 설득력을 가진 설교자들과 그의 설교가 가진 또 다른 차이점은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경험을 설교에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설교에서 자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드물었고, 그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을 언급할 이유가 있을 때는 아주 간략하게 하였습니다. 의학계의 높은 지위에서 그가 받은 놀라운 소명을 고려해볼 때, 많은 사람들은 로이드 존스 자신의 경험이 회중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이유로 그 모든 것을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선택에 사람들이 깊은 인상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가 포기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청중들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든 영적인 개종이 그의 개종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기독교를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과정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종교와 철학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한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경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객관적인 진리에 기초하고, 그것이 로이드 존스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러한 진리를 비교해볼 때,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그가 말하기를 ‘종이와 금을 비교하는 것처럼’ 가치 없는 것입니다. 1926년 11월에 방문했던 교회에서 그가 처음 설교한 본문은 평생 동안 그를 인도하는 원칙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소박한 묘비명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은 가히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2절).’

4. 한 가지 더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예언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이전 세대 웨일즈의 설교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특정 부분에서 어조를 고양시키며 성령에 충만한 것과 같이 행했던 설교를 모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로이드 존스의 사역에는 미리 연극처럼 꾸미거나 극적인 면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할 때는 확실히 천국의 임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 진리를 증거할 때 사도들이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성령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뭔가 다른 차원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그의 설교의 강력함을 알았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트래블얀 (G. M. Trevelyan) 교수는 로이드 존스가 설교하러 방문했을 때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의 학장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불신자였던 트래블얀이 로이드 존스에게 인사하러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엄청난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힘을 받으셨군요.’ 이것은 그의 설교를 읽거나 설교 녹음을 들음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설교의 신학적 배경으로 들어가서 그의 사고를 형성시킨 사상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3) Iain H. Murray, *D. Martyn Lloyd-Jones, The First Forty Years 1899-1939*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2), 147.

## 1. 칼빈주의 (감리교파) 교리

산업도시이자 바다를 낀 항구 도시인 카디프에서 웨일즈 남서부의 농경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로이드 존스의 아버지는 회중파교회에 소속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영국 국교회에 속하였습니다. 그 지역은 웨일즈어를 말하는 사람이 우세한 지역이었고, 웨일즈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상점을 하고, 집안의 물건들과 농기구들을 파는 그 곳이 그 마을에서 유일한 예배 장소인 칼빈주의 감리교 예배당이었습니다. 이곳은 웨일즈의 위대한 설교자 다니엘 롤랜드(Daniel Rowland)가 18세기 감리교 부흥의 때에 사역했고, 하나님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강력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 롤랜드의 동상이 1883년에 세워졌고,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감리교 부흥은 웨일즈에서 히웰 해리스(Hywel Harris)의 대단한 사역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영국에서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와 웨슬리 형제들에 의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웨일즈에서 그 부흥운동은 조지 휫필드에게서처럼 신학적인 면에서 명백하게 칼빈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웨일즈어를 쓰는 웨일즈에서 특별히 감리교 예배장소를 말할 때 칼빈주의 감리교로 알려진 교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후에 칼빈주의 감리교는 웨일즈 장로교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가 성장하고 나중에 목사로 임명 받은 교파입니다. 슬프게도 랑게이토에 있는 예배당은 롤랜드와 그의 칼빈주의 감리교 선조들의 설교 메시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로이드 존스와 그의 두 형제들이 교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런던으로 이사 갔을 때 그들은 크고 부유한 웨일즈어를 쓰는 칼빈주의 감리교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모든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추정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한 칼빈주의 감리교도가 된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이 교파 안에서 그는 18세기 복음주의 부흥에서 나온 웨일즈어 찬송가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웨일즈 감리교의 또 하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팬터캘린의 윌리엄 윌리엄스(William Williams)의 영어 찬송가 “나그네와 같은 내가”(Guide me O Thou great Jehovah)는 기독교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찬송가들은 풍부한 신학으로 가득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역사 선생님이 그 지역 예배당의 역사를 조사해보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은 로이드 존스에게 히웰 해리스(Hywel Harris)의 생애에 대한 책을 주었고, 몇 년 후에 그는 감리교 부흥을 강조한 역사 선생님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훨씬 전에 이것은 그의 사고를 형성해준 배경이었습니다. 그에게 깊은 영향을 남겨준 또 하나의 칼빈주의 감리교의 영향은 다니엘 롤랜드(Daniel Rowland)의 탄생 2백주년 기념으로 그의 마을에 설교하러 왔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 것에 기인합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4천명 정도의 군중 앞에서 야외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모임들이 그의 안에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칼빈주의 감리교 교부들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배경이 그의 설교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신학 면에서 개혁주의, 칼빈주의이지만, 신학적인 설교는 감리교 전통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에게 이것은 깊은 개인적인 기독교를 의미했습니다. 18세기의 칼빈주의적 감리교와 웨슬리 감리교를 특징짓는 것은 죄에 대한 강한 인식과 용서의 필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자 하는 깊은 욕망; 중생에 대한 필요의 강조;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들은 교리에 대한 형식적인 믿음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의 움직임과 존재에 대해 열려있음을 의미합니다. 웨일즈 장로교회나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는 부흥 가운데 태어

났고, 로이드 존스의 설교에서 발견되는 성령의 힘과 영향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는 설교자와 청중에게 영향을 주는 설교에서 성령의 존재를 찾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과 감동을 찾았습니다.

## 2. 성경

그는 교리적인 찬송가를 부르는 데서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와 구세주에 대한 개인적 믿음, 예수님을 더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큰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을 듣는 것을 통해 강한 도덕적인 경향과 함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또한 스스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가 십대 때에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는 17세였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칼빈주의 감리교가 믿는 ‘예정설(predestination)’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발견에 흥분하여 그것을 가족과 주일학교 학급의 다른 멤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띤 토론을 낳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로이드 존스가 헌신적인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는 전체 성경을 일년에 최소한 한 번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후에 그는 로버트 머리 매케인(Robert Murray McCheyne)의 방법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이 방법을 일반적으로 죽는 날까지 따랐으며,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도록 장려했습니다. 50년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설교와 설교자에 대한 유명한 강연을 할 때 그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것이 설교자들에게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설교할 본문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에 반대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기 위해, 영적인 혜택을 위해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 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너무나 쉽고 당연히 여기거나, 잊혀지기 쉬운 이 핵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과 사역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 하였습니다.

후에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그가 함께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던 몇몇 기독교 기관들과 운동으로부터 그를 분리했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로이드는 자신의 결정 과정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했던 2가지 원칙을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그의 설교의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처음 2가지 핵심으로 요약됩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첫째, 성경에 대한 나의 이해, 둘째, 18세기의 칼빈주의 감리교 부흥에 대한 나의 독서.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였고, 어떤 것이 내 앞에 닦혔을 때, 이 구조에 맞지 않는다면, 내 의무-그 기관들과 운동으로부터 분리하는 것-를 다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감리교 선조들의 높은 영성과 깊은 경건과 매우 다른 무엇을 보게 될 때, 나는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sup>4)</sup>

이 두 가지 원칙은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에 매혹되는 것으로부터 그를 막아주었을 뿐 아니라 카리스마 운동(Charismatic Movement)을 포용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그의 관점은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고, 부흥을 경험했던 청교도들과 18세기 사람들의 경험과 글 속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부흥의 기간에서, 교회의 연이은 역사에서 볼 때 빛이 본문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 Iain H. Murray, *D. Martyn Lloyd-Jones, The First Forty Years 1899-1939*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2), 195.

### 3. 그의 영적인 각성

그가 개종하기 전, 모든 사람은 로이드 존스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고 심지어 그는 18살 때 일년 동안 주일학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교회 배경과 성경 읽기 때문에, 그는 교회와 동료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기독교적인 의견에 대해 논쟁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습니다. 바트의 기독교 연합(Christian Union at Bart)이 근대 자유주의 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변화 이전에도 그러한 기독교 연합에 참석하는 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생애 초기와 개종하기전까지 그에게 일어난 다양한 섭리적인 사건들은 인생 마지막까지 그를 인도했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게 했을 뿐 아니라, 설교자로서 그의 신학적인 사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그는 이 세상 삶의 불확실함과 변화무상한 성격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모든 사건 뒤의 보이지 않는 섭리적인 손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들의 삶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열 살 때 아래층의 상점에 불이 붙어 이층에서 잠을 자는 동안 거의 산 채로 불에 타 죽을 뻔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창문 밖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던졌습니다. 아버지가 파산했을 때, 모든 가족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런던으로 이사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여기 이 세상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안정과 안식이 없다는 것을 인식 했습니다. 그의 형이 1914-18년 전쟁 직후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고, 자신도 그 병으로 거의 죽을 위기를 겪었으며, 급기야 192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인생의 짧음과 불확실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그에게 심오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거의 모든 주일 예배 마지막 축도에 '우리의 짧고 불확실한 순례 동안' 이란

말을 포함하였습니다.

집안의 화재에서, 한 때 걸렸던 독감의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은 그에게 모든 것을 더 높은 목적을 위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습니다. 칼빈주의 감리교도에 대한 독서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인식, 성경에 있는 예정설에 대한 이해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한 믿음을 확정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로이드 존스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그 사역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동안, 그는 때때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참석하였고, 마침내 그는 그곳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키며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후튼(Hutton) 박사의 설교에 자주 매료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채링 크로스의 웨일즈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생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하심. 다시 한번, 사역의 가장 초창기부터 이 거듭남에 대한 교리는 그의 설교의 뚜렷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죄의 실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그의 경험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의 본성을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먼저, 의대생이었을 때 런던의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그는 직접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후 국왕 주치의의 조수가 되면서, 왕실 가족들과 상류층 사회의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그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한 빈민가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며 부도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외적인 변화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의 심령의 기저에 놓인 동일한 죄악 된 본성을 발견 합니다. 똑같은 도덕적인 공백과 영적인 공허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그는 죄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인류의



삶의 중심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지를 바꾸어, 이것은 또한 로이드 존스가 자신의 삶의 근본 모습과 죄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적으로 인간이 죄악을 행하고, 뭔가 잘못 행동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심령이 모두 잘못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하고, 법을 잘 지키고, 교회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 후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과 병의 참 원인을 보게 하셨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한다. 나의 고통은 내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 존재의 바로 그 중심에서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sup>5)</sup>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말했으며, 죄의 본질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의 두려운 곤경 상태를 보게 했습니다.

1925년 부활절 즈음 그는 자신과 같은 죄인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형벌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처음부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굳게 믿는, 심지어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설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깨달음과 진리는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스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늘 물어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자신이 자라온 교회 배경에서 듣지 못했던 진리들을 확신했습니다. 즉, 그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현재 사역하는 교회의 청중들에게

그들의 자리와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따라서 그들에게 구세주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설교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두고 깊이 고민할 때, 우리는 로이드 존스가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병원의 연구실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표현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sup>6)</sup> 그는 이것을 이후에 성령 세례와 연관 지었습니다. 1949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sup>7)</sup> 윌리엄 고틀리(William Guthrie)와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과 같은 청교도들의 글에서도 유사한 간증을 발견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의 설교에서 발견된 약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듭남의 필요성,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강조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거의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칼빈주의 감리교 목사가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듣다가 이러한 약점을 발견한 후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초 칼빈주의자(hyper-Calvinist)처럼 하나님의 행위와 주권을 말하고, 퀘이커 교도(Quaker)처럼 영적인 경험을 말하는군요. 하지만, 십자가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당신의 설교에서 발견되지 않는군요.’ 로이드 존스는 좋은 의도의 비판을 받아들일 만큼 겸손했고, 이것을 통해 그는 더 생각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설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배경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5) Iain H. Murray, *D. Martyn Lloyd-Jones, The First Forty Years 1899-1939*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2), 64.

6) Iain H. Murray, *D. Martyn Lloyd-Jones, The First Forty Years 1899-1939*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2), 85, 101.

7) D. Martyn Lloyd-Jones, *The Fight of Faith 1939-1981*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90), 208-220.

#### 4. 그의 독서

신학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로이드 존스는 차후 웨일즈 회중교회 대학의 교장이 된 회중교회 한 목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것을 정정하기 시작합니다. 이牧사는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듣고 난 후, 자신의 서재에서 특별히 대속에 관한 책들을 주었습니다. 그 책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제임스 데니(James Denney)가 쓴 『그리스도의 죽음』(*The Death of Christ*)(1903)과 포사이드(P.T. Forsyth)의 『십자가의 중요성』(*The Cruciality of the Cross*)(1909)이며, 두 책은 그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1925년에 설교자가 되라는 부르심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중요한 기독교 주간신문(*The British Weekly*)을 매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최신 신학적인 지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그런 사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울러, 그 신문을 통해 그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신학적인 작품들을 추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그는 청교도에 대해 새로 알게 되었고,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새로 나온 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 강한 인상을 받고, 1926년 3월 자신의 예배당에서 청교도주의에 대한 연설도 하였는데, 이것이 그가 평생 청교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18세기 칼빈주의 감리교 지도자들이 열렬한 청교도 작품의 독자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들의 글이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체 사역이 이것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자유롭게 고백한다.’<sup>8)</sup> 또한 그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데 그들의 전체적인 접근법이 설교자들이 고려할만한 가장 유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1929년에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와 그의 책들을 접함으로써, 그는 청교도들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청교도주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와 사역에서 가장 충만하게 꽃을 피었습니다.’<sup>9)</sup> 두 권의 조나단 에드워즈 책은 로이드 존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sup>10)</sup> 그는 휴가 동안 반드시 복음주의적인 성격의 책은 아니더라도 더욱 더 많은 신학적인 작품을 열정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책들을 통해 더 유용한 정보를 얻었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아니면 무엇을 더 깊이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 스스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는 브리티시 위클리(*The British Weekly*) 신문의 또 다른 서평을 보고, 1932년 벤자민 워필드가 쓴 10권짜리 조직신학 서적들을 읽고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언 머리(Iain Murray)는 로이드 존스의 사고와 사역에 두드러진 발전을 가져오게 한 것은 다른 현대적인 작가보다 바로 워필드라고 말하였습니다. 워필드는 로이드 존스에게 교리적인 설교와 가르침의 필요성에 새로운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워필드의 작품들은 훌륭한 방법으로 기독교 믿음을 선포하게 가르침과 동시에 현대의 실수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로이드 존스가 전에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워필드의 작품 가운데 하나를 서평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워필드)는 개혁적 신앙을 주장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다른 모든 체계나 부분적인 체계보다 우월함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그는 ‘대부분의 작가 이상으로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구원의 영광과 놀라움에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sup>11)</sup> 뒤 이은 몇 년 동안 로이드 존스의 사역에서

8) D. Martyn Lloyd-Jones, ‘Puritanism and its Origins’ in *The Good Fight of Faith* (Westminster Conference Papers, 1971), 72.

9) D. Martyn Lloyd-Jones, ‘Jonathan Edwards and the Crucial Importance of Revival’ in *The Puritan Experiment in the New World* (Westminster Conference Papers 1976), 105.

10) Iain H. Murray, *D. Martyn Lloyd-Jones, The First Forty Years 1899-1939*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2), 254.

11) Iain H. Murray, *D. Martyn Lloyd-Jones, The First Forty Years 1899-1939*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2), 285-287.

이 모든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 5. 결론

로이드 존스는 신학대학원이나 성경 대학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런 기관들에서 하는 훈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학적, 목회적 훈련을 위하여 웰즈 장로교 대학(Welsh Presbyterian college)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반적인 방식에서 예외적이었습니다. 그는 실제 포트 탈벗에 있는 교회에 부름을 받았고, 비록 목사로 임명을 받기 전에 목회적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 곳의 성도들로부터 목사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처음 사역한 지 8개월동안 그는 평신도-목사라는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 하였지만, 교단은 그가 안수를 받도록 격려했고, 그것이 장로교 교단이나 다른 곳에서도 더욱 잘 받아들여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의 엄격한 규율들은 그에게 잘 들어맞지 않았고, 다른 동료 사역자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규정집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그와 교단을 비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안수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였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하나님에 관한 경험, 목회적인 것 뿐 아니라 성경의 지식과 관련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의학적 훈련, 교단의 초기 지도자들의 삶과 작품들을 통해 영감 받았던 교리들은 그가 설교자와 목사로서 섬기는데 초기의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적절하고 비중있는 독서를 지속함으로써 신학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충분히 보충하였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 독서와 배움을 결단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학과 신학교를 졸업한 많은 설교자와 목사들은 그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신학 작품을 읽는 것에 무관심합니다. 로이드 존스에게서 배웁시다! 그는 설교자들이 아침에 공부하고 독서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공휴일에는 더욱 비중있는 신학서적을 읽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은퇴하기 전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의 모범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목회 예비생들은 초기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깨달음 때문에 그는 1977년 런던 신학 대학원(London Theological Seminary)을 설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였고, 성령의 필요를 늘 의식하였다는 점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결코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 참고문헌

- Ben Bailie, 'Lloyd-Jones and the Demise of Preaching' in *Engaging with Martyn Lloyd-Jones*, edited by Andrew Atherstone and David Ceri Jones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2011.
- Gary Benfold,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Evangelistic Preaching of Martyn Lloyd-Jones with special reference to his 'Acts' series of sermons and its Relevance for UK Pastors today* (D.Min. Thesis, University of Wales: Trinity St David's), April 2017.
- John Brencher, *Martyn Lloyd-Jones (1899-1981) and Twentieth-Century Evangelicalism* (Carlisle, Cumbria: Paternoster Press), 2002, Chapter 2.
- Philip H. Eveson, *Travel with Martyn Lloyd-Jones* (Leominster: Day One Publications), 2004 (Korean edition translated by Shin Ho Sub, (Seoul: Revival & Reformation Press), 2006.
- Philip Edgcumbe Hughes, 'The Theologian' in *Martyn Lloyd-Jones: Chosen by God* edited by Christopher Catherwood (Crowborough: Highland Books), 1986.
- Keun-Doo Jung, *An Evaluation of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the Preaching of D. M. Lloyd-Jones* (Th.D Thesis, Potchefstroom University), June 1986.
- J. M. Keith *The Concept of Expository preaching as represented by Alexander Maclaren, George Campbell Morgan and David Martyn Lloyd-Jones* (Th.D. Dissertation, South 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75.
- Steven J. Lawson, *The Passionate Preaching of Martyn Lloyd-Jones* (Sanford, FL: Reformation Trust Publishing, Ligonier Ministries), February 2016.
- Peter Lewis, 'The Doctor as a Preacher' in *Martyn Lloyd-Jones: Chosen by God* edited by Christopher Catherwood (Crowborough: Highland Books), 1986.
- D. Martyn Lloyd-Jones, 'William Williams and Welsh Calvinistic Methodism' in *The Manifold Grace of God* (Puritan Conference Papers 1968) pp. 76-95 and *The Puritans*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pp. 191-214.
- D. Martyn Lloyd-Jones, 'Puritanism and its Origins' in *The Good Fight of Faith* (Westminster Conference Papers 1971), pp. 72 and *The Puritans*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pp. 237-259.
- D. Martyn Lloyd-Jones, 'Jonathan Edwards and the Crucial Importance of Revival' in *The Puritan Experiment in the New World* (Westminster Conference Papers 1976), and *The Puritans*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pp. 303-325.
- D. Martyn Lloyd-Jones, *Preaching & Preachers* (London: Hodder & Stoughton), 1971.
- Iain H. Murray, *D. Martyn Lloyd-Jones, The First Forty Years 1899-1939*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2 and *D. Martyn Lloyd-Jones, The Fight of Faith 1939-1981*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90.
- Iain H. Murray, *Lloyd-Jones, Messenger of Grace*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2008.
- Iain H. Murray, 'Understanding Martyn Lloyd-Jones' in *Seven Leaders. Preachers and Pastors*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2017.
- Tony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The Preaching of Dr Martyn Lloyd-Jones* (London: Hodder & Stoughton), 1994.
- Robert Strivens 'The Evangelistic Preaching of Martyn Lloyd-Jones', *Foundation* Autumn 2007.